

2024. 2. 11.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설교: 임동진

본문: 마태복음 Matthew 1:18-25

제목: 예수를 만난 사람들(37)-나사렛 요셉

본문 읽기

(표준새번역) 1:18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ESV) 1:18 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took place
in this way. When his mother Mary had been
betrothed to Joseph,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from
the Holy Spirit.

1: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1:19 And her husband Joseph, being a just man
and unwilling to put her to shame, resolved to
divorce her quietly.

1:20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1:20 But as he considered these things, behol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saying, "Joseph, son of David, do not fear to
take Mary as your wife, for that which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1: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1:21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1:22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1:22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poken by the prophet:

1: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1:23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1:24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1:24 When Joseph woke from sleep, he did as the angel of the Lord commanded him: he took his wife,

1:25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1:25 but knew her not until she had given birth to a son. And he called his name Jesus.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반복되는 일상,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성공과 성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키워드 주고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숨이 막히도록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재밌는 일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에 지쳐가고 있으십니까?

막막하고 앞을 볼 수 없는 현실에 숨이 막히십니까? 공부해도 성적은 안 오르고, 애쓰고 노력해도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이런 답답한

시골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답이 안 나온다고
느끼십니까?

나름 최선을 다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주어진 상황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나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급함이 드십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이렇다 할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앞
에서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
맞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삶으로 예배 드려야
할 그곳이 맞습니다. 거기가 여러분이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야 할 자리가 맞습니다.

기적 같은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답답한 현실도 바꾸어 주지 않으실 거고, 불확실
미래도 환하게 밝혀 주지 않으실 거고, 모자라는 나의
능력도 더 채워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배에 힘 딱 주고 현실을 보십시오. 이 현실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 아니구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의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하늘을 날아 올라 장애물을 넘어서고 위험을 피하고, 수퍼 파워를 발휘하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두 자기가 부름 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일상을 예배로 드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삶의 자리에서 일상을 예배로 드린 사람

요셉은 그 답답한 현실에서도

✓ 의롭고 배려심 깊은 남자

요셉이 만난 답답한 현실을 보십시오. 18b 절. 약혼을 한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는

것을 모를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표준새번역) 1:18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ESV) 1:18b ...When his mother Mary had been betrothed to Joseph,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from the Holy Spirit.

19 절. 마리아가 결혼 전, 약혼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부끄러움을 당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의롭고
배려심 깊은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1: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1:19 And her husband Joseph, being a just man and unwilling to put her to shame, resolved
to divorce her quietly.

막 10:2 절. 아내와 이혼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버려도
되느냐는 질문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권리가 있다고 오해하던
시대였습니다.

(표준새번역) 마가복음 10:2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KJV) Mark 10:2 And the Pharisees came to him, and asked him, Is it lawful for a man to put
away his wife? tempting him.

이런 시대에 요셉은 호적 등록을 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있었고, 요셉은 다윗 가문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눅 2:5-6 절. 약혼한 마리아가 출산할 날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갑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결혼 전에
 임신한 마리아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요셉이 데려고 일부러 그때 데려간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2:5-6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 때에 마리아는
 임신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Luke 2:5-6 5 to be registered with Mary, his betrothed, who was with child. And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her to give birth.

요셉은 답답한 현실이라고 자기 살길을 찾기보다
 상대방을 생각해 줍니다. 요셉은 나몰라라 임신한
 마리아를 내버려두기보다 사람들로부터 마리아를
 떼어 놓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부릅니다)
 의롭고 배려심 깊은 요셉의 행동은 그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의 신앙인**

그 답답한 현실,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부터 요셉을
 건져 주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20 절. 천사를 통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천사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1:20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1:20 But as he considered these things, behol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saying, "Joseph, son of David, do not fear to take Mary as your wife, for that which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21 절. 아예 아기 이름까지 줍니다.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1: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1:21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그 아기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된다고 알려 줍니다.

1: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1:23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그 말을 듣고 24 절. 요셉은 그대로 따릅니다. 천사의
말대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24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1:24 When Joseph woke from sleep, he did as the angel of the Lord commanded him: he took his wife,

헤롯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2 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다시 나타나,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알려 줍니다. 그러자 요셉은
마 2;14-15 절. 꿈에서 깨자마자 그 말 그대로 따릅니다.

마태복음 2:14-15a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Matthew 2:14-15a And he rose and took the child and his mother by night and departed to
Egypt and remained there until the death of Herod. ...”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뿐 아니라, 나의
능력이 모자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받아들이면 삶은 단순해 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이며, 이렇게 살아가면
삶이 단순해 지고, 행동은 확고해 집니다.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요셉은

✓ **신실하고 책임감있는 보호자**

우리의 본성은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내고,
유명해지고, 업적을 남기고, 내 능력과 노력을
인정받고,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둡니다. 특히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은 가족의 보호자, 아기 예수의 보호자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 13:55-56a 절을 참고하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4 명의 아들과 여러명의 딸들이 태어납니다. 요셉은 대가족의 부양자이며, 가장이며, 보호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3:55-56a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
Matthew 13:55-56a 55 Is not this the carpenter's son? Is not his mother called Mary? And are not his brothers James and Joseph and Simon and Judas? And are not all his sisters with us? ...

여기에서 요셉의 직업인 ‘목수’는 그 당시 손을 사용하여 나무, 돌, 쇠를 다루는 ‘잡역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동네에서 뭐든 고치고, 세우고,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나사렛은 당시 대략 400 명 정도 사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요셉이 대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서 잡역부(목수)로 일하는 것 외에 다른

동네까지, 혹은 로마가 시키는 여러 도시 건설에도 동원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 역사 문헌들을 보면 유대 땅에서 많은 학살, 압제, 폭정이 있었고, 로마군은 조금이라도 대항하면 철저하게 밟고 몰살시켜버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애쓰고 노력해도 환경은 바뀌지 않고, 땀흘려 하루 종일 일해도 가족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메시아와 그 집이 생계를 유지한 건 기적이 아니라, 요셉의 신실함과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신실함과 책임감이 메시아 예수와 그 가족을 살렸습니다.

나사렛 요셉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을 믿음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롬 12:1 절,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지는 예배,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요셉이 드렸던 겁니다.

(표준새번역) 로마서 12:1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ESV) Romans 12:1 I appeal to you therefore, brothers,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worship.

꿈에서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것 말고, 그의 인생에 기적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으로 선택 받았지만, 그에게 더 특별한 복이 이땅에서 주어진 것도 없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임신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그 아기를 받아들이라고 하시고, 그 아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임마누엘)는 표적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는 이집트로 도피해서 수년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므로 그 몸과 삶을 예배로 드린 겁니다.

메시아를 아들로 키우는데 (우리 생각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라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척박하고 힘든 환경에서 대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요셉은 잡역부(목수)로 매일 일상을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예배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의롭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을 삶의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찬양이 우리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찬양: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작사 김준영
작곡 송정은
채보 김주평

F F(sus4) Fmaj7 Eb/F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 로 보네 내 몸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네 내 몸

5 Bbmaj7 Am7 Dm7 Gm7 Bb/C F Eb/F

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을 느끼네

9 Bbmaj7 Am7 Dm7 Gm7 Bb/C F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13 Bbmaj7 Am7 Dm7 Gm Bb/C F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Fine* 내가

17 Bbmaj7 C/Bb Am7 Dm7 Gm7 Bb/C F F7

걸어갈 때길 이 되 고 살아갈 때 삶 이 되 는 그곳에서 예배 하네 내가

21 Bbmaj7 C/Bb Am7 Dm7 Eb C(sus4) Eb/F *D.S. al Fine*

걸어갈 때길 이 되 고 살아갈 때 삶 이 되 는 그곳에서 예배 하네 부르신 곳에서

기도: 하나님 앞에서

- ➔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가족과 지체의 필요에 맞추어 주는 의롭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 ➔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함을 주시고,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게 하소서
- ➔ 하나님이 부르신 이 곳, 이 가정, 이 직장, 이 학교에서 매일의 일상이 나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4.2.1,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나사렛 요셉, 마태복음 1:18-25)

1.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 막막하고 앞을 볼 수 없는 현실, 노력하고 애써도 멀게만 느껴지는 목표,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중 나에게 가장 힘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2. 나사렛 요셉의 어떤 면이 가장 닮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단순함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삶이 단순 해 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4.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가정, 이 직장, 이 학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나의 예배가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